

영어교육에서 베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의 효과 비교: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박상옥*, 이유진**
홍익대학교, 인디애나대학교

Park, Sang Ok & Lee, Yoo-Jean. (2009).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copying and summarizing practice in English education: Based on the case study. *Modern English Education*, 10(2), 60-86.

Writing is as important as other language skills for English learners since they need to communicate with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in this international world by expressing their ideas accurately and appropriately in both oral and written English. What makes writing instruction more complicated is the fact that research has merely shown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and writing as it has in listening and speaking. It is clear that writing itself should be explicitly taught to English learners in cla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how two types of writing strategies; copying and summarizing; are useful in improving Korean college students' English writing skill. Eight students, divided into two groups for each writing activ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chose one editorial from any English newspaper to either copy or summarize it everyday during one semester. Interestingly enough, copying practice was found to be effective for less proficient students; whereas, summarizing practice was found to be effective for more proficient students in writing. Suggestions are made for further research.

[writing strategy/copying practice/summarizing practice/
쓰기 전략/베껴 쓰기/요약하여 쓰기]

I. 서론

진정한 의사소통의 기본은 말이나 글로 자신의 의사를 상대가 이해하도록

* 제1저자

** 공동저자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 모국어든 외국어든 언어를 습득 또는 학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실제적 연구는 끊임 없이 되어오고 있고 외국어를 지도하는 경우에도 학습보다는 습득의 효과가 월등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국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어교육의 경우 물리적인 측면에서 영어마을 운영, 원어민교사 채용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듣기와 말하기인 구어교육에서는 최근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읽기와 쓰기, 특히 쓰기와 관련한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영어교사들의 경우 별다른 의식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혹자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읽기에 있어서만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달해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문장수준에서의 문법구조 이해능력 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짤막하고 평이한 글을 이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Soyoung Lee, 2001; Heshim Song, 2000). 따라서 이는 진정한 의미의 읽기 능력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쓰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과정중심 쓰기연습의 중요성이 언급되기는 해왔으나 학술 연구 논문에서만 종종 다루어질 뿐 실제로 교실에서는 영어교사의 지도능력 부족, 과다한 학생 수, 불충분한 수업시수 등으로 인해 쓰기연습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Eunsook Shim, 2009). 또한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쓰기 실력이 많이 부족하며 쓰기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Minjong Song, 2007).

다시 구두 언어로 돌아가서 듣기와 말하기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면, 설득력 있는 Krashen과 Terrell(1983)의 L2 언어 습득이론은 자신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충분한 양의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이 학습자에게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기 시작하고 이 후 계속해서 듣고 말할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구어능력이 점점 향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문자언어인 읽기, 쓰기와의 관계에 적용하면 학습자가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 이내의 충분한 읽기 자료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쓰기능력이 개발된다는 양 기능 간 상호관계의 성립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ESL 또는 EFL 환경에서 이러한 두 기능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강조되고 있으며(Sun-Young Kim, 2007; Tsai, 2006) 그 두 기능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거의 없다 볼 수 있다. 이것은 읽기와 쓰기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이제 잠시 서울의 어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재학했던 한 3학년 학생의 영어작문 예를 보기로 하겠다. 작문의 주제는 ‘What kind of English teacher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이었다.¹

¹ 2006년 정규기말 시험문제 중 하나였음. 철자, 띄어쓰기, 문단의 시작 등을 그대로 옮겼음.

When I was young, I wanted to be a powerful teacher. When I teach something, students should memorize and they will get fear of me. But now, I want to be a teacher who easy to communicate with students. In writing, students have to write diary everyday and I will correct and In speaking, remove their fear of grammar rules. In reading I would use mostly intercultural text for teach practical English and use appropriately. All my class I would make good climate, so many students can participate freely.

작문의 평가 기준인 정확한 문법사용, 적절한 어휘선택, 논리적 글 전개에 있어 모두 수준이하의 실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대학에 입학하기위한 이 학생의 수학능력 시험 영어성적이 전국 상위권이어서 해당 대학에 입학이 가능했을 것이라는데 있다. 결국 읽기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해도 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적인 노력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을 때 전이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동사와 명사가 함께 사용되는 연어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읽고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쓰거나 말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HyeJin Kim & Hyunsook Yoon, 2008). 따라서 민찬규(1994)는 영어 학습 초기단계부터 작문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정확하고 적절하며 논리성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법, 어휘, 기술적 측면(mechanics) 교육이 기초 단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쓰기가 읽기에 선행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배열되는지를 모르고서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쓰기는 다른 세 가지 기능을 따라 가르쳐야 한다. Rivers(1981)도 일찍이 수준 있는 작문(higher level of composition)은 학습자가 다른 기능들을 어느 정도 완벽히 성취했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읽기와 쓰기는 듣기와 말하기처럼 자동적인 전이가 높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쓰기는 학생들의 필요와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학교에서 영어 쓰기지도 방법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두 가지 쓰기 방법(베껴 쓰기, 요약하여 쓰기)을 한국의 한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사용할 경우 그 효과는 어떠한지,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베껴 쓰기 혹은 요약하여 쓰기를 하는지, 또한 그 과정에 있어 어떠한 쓰기전략을 사용하는지를 비교하고 차이 유무를 알아내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중 요약하여 쓰기는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나 베껴 쓰기는 영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철자법 및 구두점을 익히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다고 언급될 뿐(Rivers, 1981), 오히려 최근 표절과 연계되어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껴 쓰기가 대학생들에게도 쓰기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II. 문헌연구

베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는 다 같이 학습전략의 종류라 할 수 있다. 학습전략은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자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또는 방법을 의미하며 베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는 쓰기능력 향상을 위해 언어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베껴 쓰기는 쓰기지도의 초기단계에서 사용하는 완전히 통제된 연습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글자를 인지하고 자신 있게 직접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보옥(2003)은 ‘기계적인 베껴 쓰기’와 ‘베껴 쓰기’로 나누어 정의하며 ‘기계적인 베껴 쓰기’는 알파벳, 철자, 부호, 단어의 어순과 의미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대로 모범문장을 베끼는 것으로 어휘 암기 및 독해 영역에 매우 효율적이라 하였고, ‘베껴 쓰기’는 모범 모형을 제시한 후 단락이나 문장들을 분석하고 문법적으로 설명한 후 각 문장의 의미와 구성에 대해 알고 그것을 베껴 쓰는 것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영어 문장과 같이 베껴 쓰기를 할 경우 두 언어 간 어순과 통사적 차이를 알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하였다.

한편 ‘요약하여 쓰기’는 읽은 글 중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축약하여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Jeongsoon Joh, 2000) 글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글의 내용, 의미와 중요한 담화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설명하는데 효율적인 쓰기 연습 방법이다(Brown, Campione, & Day, 1981; Garner & McCaleb, 1985). Kintsch와 Van Dijk(1978, Johns & Mayes, 1990에서 재인용)은 요약과정 중 일어나는 세 가지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 ① 삭제하기(deletion): 중요하지 않거나 반복되는 정보를 제외시킴
(unimportant or redundant information is left out)
- ② 총괄하기(generalization): 상위 명제를 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하나로 합침(ideas are combined to produce a superordinate proposition)
- ③ 재구성하기(construction): 읽는 이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사항이나 정보를 제시함(external information is introduced by reader inference)

한편 Kech(2006)은 자신의 연구를 위해 학생들에게 요약물 과업으로 주면서 지시문에서 글을 읽고 자신의 말로 요점을 설명하는데 사적인 의견을 첨가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글 내용을 평가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조사(review)와 달리 요약은 읽은 글의 요지를 주제와 벗어나지

않게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상 베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는 통제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다 같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적절히 글로 표현하고자 하는 글쓰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쓰기전략의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위의 두 방법이 L2나 외국어 쓰기교육에서 각각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EFL수업에서 베껴 쓰기를 통한 인지적 언어지식은 모국어 작문실력, 자유 작문 습관과 함께 영어 작문실력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eongsook Chin, 2005; Tai-II Pae, 2008). 여기서 언어지식이라 함은 어휘 및 문법지식과 구두점 사용을 의미한다. Olshtain(2001) 역시 글로서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알아볼 수 있는 필체, 정확한 철자와 구두점, 문법사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이들은 베껴 쓰기에서 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적어도 대학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구어나 문어에서 정확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Celce-Murcia, 1985).

한편, 요약에서 수반되는 인지과정에 대해 Johnson(1983)은 개별 명제의 이해, 명제 간 관련성 수립, 글 구조 파악, 내용 암기, 요약에 포함할 정보 선택 등을 들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장기기억 된다고 하였다. Taylor와 Beach(1984)는 요약하여 쓰기 연습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논술작문(expository composition)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Jeongsoon Joh(2000)는 여기에 더하여 요약하여 쓰기가 읽기와 쓰기능력 향상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해, 어휘, 요약문의 평가와 함께 설문조사를 하였다.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는데 글쓰기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의견도 포함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표절과 위의 두 가지 쓰기방법의 관계이다. Harris(2005, Yujung Park, 2007에서 재인용)는 표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Plagiarism occurs when an improper crediting of an information source happens. It includes actions ranging from paraphrasing or summarizing a source's words without proper citation, copying and posting phrases or paragraphs, to downloading ... from the web. (p. 66)

간단히 표현해서 인용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을 마치 자신의 말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한다. 따라서 베껴 쓰기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는 연습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ESL 학생들에게 글을 읽고 요약하여 써보게 하였을 때

영어실력에 따라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는데 실력이 낮은 학생들은 대체로 원문을 그대로 베껴 쓰는 직접 인용방식을 이용한 반면(Johns & Mayes, 1990; Kennedy, 1985), 실력이 높은 학생들은 원문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꿔 쓰기(paraphrase)를 많이 하고 있었다. Sun-Young Kim(2007)은 실력에 따라 다른 원문의 직접 인용 비율에 대해 우수한 학생집단은 10%, 그렇지 않은 학생집단은 72% 정도라고 하였다. 한편 ‘rephrase’와 ‘restructure’라는 용어로 나머지 비율을 설명하였는데 전자는 원문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재 진술 하는 것이고 후자는 의미를 바꾸어 재구성 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가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과 ESL학생들과의 요약하기 과업 비교에서 원어민은 네 단계(Near Copy, Minimal Revision, Moderate Revision, Substantial Revision) 중에서 주로 나중의 두 가지를 사용하였지만 후자는 거의 베껴 쓰는 Near Copy를 하고 있었다(Kech, 2006).

표절문제와 관련하여 대학원생들이 영어로 학술논문을 작성할 때 참고문헌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Yujong Park, 2007)에서 많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식의 구문적 표현과 어휘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헌에 의존하게 된다고 답하였다. Yujong Park(2007)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국 더 많은 베껴 쓰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Kech(2006)은 베껴 쓰게 되는 요인들 중 어학실력, 쓰기과제, 문화차이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언어능력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고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 for both L1 and L2 academic writers, copying from source texts is a necessary phase through which developing writers must pass before they acquire more sophisticated ways of integrating sources into their writing. (p. 262)

여기서 베껴 쓰기는 학생의 어학수준 그리고 심리상태와 같은 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단순한 기계적 연습이 될 수도 있고 요약하여 쓰기에 서와 유사하게 복잡한 지적활동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 학습 초기단계에서 사용하는 펜십자(penmanship) 연습은 전자의 경우에 속할 것이다. 한편 후자에 있어서는 베껴 쓰는 동안 단어를 유추하고 내용에 대해 추론하기도 하며 전체 글의 구성을 살펴보는 등의 인지적 독해전략을 사용하는 학습자도 있을 수 있고 문장 구조 및 어휘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는 등의 상위 인지전략을 사용하는 학습자도 있을 수 있으며 문맥에서 추측하는 등의 보상전략을 사용하는 학습자도 있을 수 있다(Oxford, 1990). 따라서 단순히 기계적인 베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 연습이 학생들의 쓰기능력의 변화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서론에서 연구 문제로 이미 제시하였듯이 본 논문에서는 영작문 교육에서 베껴 쓰기 연습이 초기단계를 지난 학습자들에게 고급 수준의 쓰기 단계로의 진행과정에서 효과가 있는 방법인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요약하여 쓰기 연습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살펴보기로 하겠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07년 2학기에 서울에 있는 한 4년제 대학교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학년 전공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중에서 대상이 선정되었다. 연구계획 단계에서는 각자 선택하여 두 학급으로 분반된 학생들을(각각 28명과 29명) 학급별로 베껴 쓰기 반과 요약하여 쓰기 반으로 지정하여 한 학기동안 영어신문(Korea Herald, Korea Times, 기타)의 사설을 과제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결과물과 설문지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고 그 밖에도 연구가 진행된 학기동안 다른 영작문 수업을 들었다는 학생들(8명)을 제외하게 되면서 연구대상은 각 반에서 4명씩 총 8명으로 축소되었다.

2. 자료수집

수업 첫 시간에 사전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제는 ‘What do you think of corporal punishment?’로 각자 찬반의 의견을 50분 동안 영어로 쓰게 하였다. 학생들은 곧바로 9월 첫 주부터 영어신문이 휴간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한 개의 사설을 해당 학급에 따라 한 반은 베껴 쓰기 다른 한 반은 요약하여 쓰기를 하도록 지시받았다. 한 학기동안의 과제수행 결과물은 학기말 시험날 포트폴리오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사설을 읽고 베껴 쓰기 혹은 요약하여 쓰기를 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메모를 해놓거나, 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는 것 등을 하도록 하였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는지(예. 단어나 어휘 공부 방법)에 대해 간단히 포트폴리오 안에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성적과 작문 내용을 비교하는 것 외에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또는 얼마나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였는가를 알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 시험답안 제출 후 학생들에게 사전평가에서와 같은 체벌(corporal punishment)을 주제로 50분 동안 영어로 쓰게 하였다(사후평가). 마지

막으로 김미래와 서천수(2007), Unkyoung Maeng(2006), 그리고 O'Malley와 Chamot(1990)의 학습전략 분류 방법을 참고하여 필자가 제작한 설문조사(부록 1)를 반별로 실시하였다. 이는 한 학기 동안 베껴 쓰기 혹은 요약하여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전반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총 32문제 중 30문제는 객관식 이었으며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다소 그렇지 않다(2), 잘 모르겠다(3), 다소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중에서 숫자를 고르도록 하였고, 나머지 두 문제는 주관식으로 학생 개인의 의견을 간단히 적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는 TWE²채점 기준(부록 2)에 따라 평가 되었다. 채점 기준으로는 문법, 철자, 맞춤법, 단어 사용, 글의 구성과 전개, 주제와의 적절성 등이 포함되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와 영작문 수업을 맡아오고 있는 원어민 교수가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였으며 두 평가자 간 신뢰도는 .90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 학생들에게는 각각의 평가자가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제출된 사설 과제는 연구 대상 각각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성실히 과제를 수행하였는지 철저히 점검되었으며, 설문조사에서는 각 반별로 또는 전체적으로 특징이 될 만한 응답들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객관식 문항에 대해서는 4명의 베껴 쓰기 집단과 4명의 요약하여 쓰기 집단 간 답변의 평균을 비교했으며, 주관식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말을 인용하여 비교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우선 각 과제의 대상별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성적을 제시하고 두 시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의해 보겠다. 계속해서 개개인의 포트폴리오와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하겠다.

1. 베껴 쓰기 반

1)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성적 비교

² 미국의 ETS에서 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쓰기평가 도구이며 Test of Written English의 약자로 최저점수가 0점이고 최고점수가 6점임.

총 4명의 베껴 쓰기 반 학생들의 성적을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사전 평가의 점수에 비해 4명의 학생 모두 사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쓰기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1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성적 (베껴 쓰기 반)

학생 시험	A	B	C	D
사전평가	3.5	3	2	1.5
사후평가	4.0	3.5	3.5	3.5

2) 작문 내용 비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 학생 간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 있어 작문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A학생의 경우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체벌에 대해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제해야 하지만 필요하다는 것인데 체벌이 금지된 서양사회에 대해서 사후평가에서 'freedom'과 'individualism'같은 구체적인 특징을 언급함으로써 향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아울러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 I believe that each society has its own method *for everything³. (사전평가)
- However, we need to take 'cultural *difference' into consideration. (사후평가)

그러나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모두에서 글의 내용이 주제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고 논리성이 부족하였다.

기본적인 언어능력을 의미하는 적합한 어휘사용이나 정확한 문법사용에서 또한 공통적으로 오류를 찾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보겠다.

- *There's no *teacher who beat students.... (사전평가)
- *There's no special problems.... (사전평가)
- We're given *it a lot of power and understood what it did *in the name of Education. (사후평가)
- I think it is enough *time to affect *__ own nature. (사후평가)

3 *는 비문임.

B학생의 경우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사전평가에서는 ‘Why don't you look for better ways to make children better?’라고 질문하고 나서 ‘We can merely talk to them.’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방법을 제시하며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후평가에서는 ‘...watch and correct them by telling them softly. Through this procedure, they can grow by interacting with others, not being ordered by others.’라고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B학생 역시 다음과 같이 언어능력의 부족을 나타내는 문장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 I can *tell *the Confucianism explains everything. (사전평가)
- Martin Luther King, Jr. said that *everything was born *in the same. (사전평가)
- They thought it *is very natural.... (사후평가)
- ... they tend to overload their negative feelings from stresses *leaded by work.... (사후평가)

다음으로 C학생은 사전평가에서 체벌과 관련해 단순히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줄어들었다는 식으로 일반적인 변화를 기술하였고 잘만 사용한다면 단시간에 학생들을 훈련하기에 좋을 수 있다고 모호하게 표현하였다.

- It can be done *in very right time, so teachers use it to discipline their students in a short time.

한편 사후평가에서는 첫 문단에서 우리 사회에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유를 구체적인 예들을 들며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는데 사전평가에서의 표현과 비교할 수 있겠다.

- It goes without saying *the effects of corporal punishment could be effective when it *can be done in a right way not to harm *people's body and their dignity as a human being.

잘못된 어휘나 문법사용은 두 작문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 There is less physical punishment happening in *__ classroom. (사전평가)
- Teachers can't help *concerning the atmosphere of our society. (사전평가)
- Corporal punishment could be one of the *effected way of (사후평가)

- What else are *___ supposed to do *the teachers? (사후평가)

베껴 쓰기 반에서 사전평가 성적이 가장 낮은 D학생은 두 작문에서 모두 체벌을 찬성하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기본적인 언어능력에서의 오류가 역시 많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사전평가에서 심하였으며 그 예들은 다음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 Those experiences have *been given lots of *things *to remember to me.
- They keep *on mind *things that they're not going to say something emotional.

글의 전개에 있어서도 갑자기 ‘secondly’와 ‘thirdly’가 나오지만 어떻게 앞의 부분과 연결되는지 알 수 없었다.

한편 사후평가에서는 기술에 있어서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다. 이를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 I believe our students are gem before being trimmed by a master. So what teachers will do for them is *making them *jewelry glittering. All the time, it's better to be positive. (사전평가)
- I believe the young generation is *just same as a diamond. When diamond is discovered first, it looks like such a normal stone. But once it is handled and polished by a cutter, it stays to shine as a gem. *One young generation also *need to be handled carefully. (사후평가)
- And use it(punishment) *in the last time when you can't instruct them verbally anymore. (사전평가)
- Therefore, punishment must be the last way to control our students. (사후평가)

2. 요약하여 쓰기 반

1)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성적 비교

총 4명의 요약하기 쓰기 반 학생들의 성적을 정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전평가의 점수에 비해 E, F, G 세 학생은 사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H학생의 경우 오히려 사전평가에서 보다 사후평가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성적 (요약하여 쓰기 반)

시험 \ 학생	E	F	G	H
사전평가	3.5	3.5	2.5	1.5
사후평가	4.5	4.5	3.0	1.0

2) 작문 내용 비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 학생 간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 있어 작문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E학생의 경우 사전평가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기까지의 일반적인 상황 설명이 지나치게 장황하고 결국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마지막까지 알 수 없게 글을 전개하고 있었다. 마지막 세 문장을 그대로 옮겨 보겠다.

I personally think that the students won't *what the physical punishments which have made their feelings hurt. This does not mean that there should be any punishment, but *any punishments can change into a positive one if the teachers reflect *the current thoughts and the *students needs. Teachers should realize that *today's classroom is not for them, but both for the teachers and students.

한편 사후평가에서는 첫 문단에서 체벌의 정당성에 대해 과거와 달리 요즈음에는 논의가 뜨겁다면서 자신은 단연 반대한다는 의사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표현하고 몇 가지 이유를 나열하였다.

Personally, I would say that this traditional *concept and punishment itself have to be stopped for good *in several reasons.

어휘 사용과 문법에도 오류가 있기는 했지만 세 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영어표현의 미숙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하지 못했다.

Considering these *facts, it will be essential for the teachers *on regarding the physical punishment as a negative feedback to the students.

F학생의 경우 사전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어색한 표현이 많아 체벌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않게 전달되었다. 예를 들어보겠다.

Other *punishment such as cleaning the toilet or writing reflection *essay can make students think and give *the students time to think. *It can make *students' improvement in behavior from the mind which can last long.

한편 사후평가에서는 체벌을 허용하지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Some strict *rule could be made for effective management of schooling. This is the time we need to think about corporal punishment and trust between teacher and public schools. Teachers *are never *like those people who treat children mechanically. They do try best *for teaching children. That is what teachers are for.

그러나 사후평가에서도 ‘one of the way’, ‘this may sounds’, ‘when a student do’와 같은 문법적 오류가 있었다.

다음으로 G학생의 경우 사전평가에서 기본적인 영어실력을 보여주는 어휘와 문법 사용능력이 체벌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는데 문제가 있었다. 몇 개의 예문을 소개해 보겠다.

- So, I suggest that corporal punishment *have to be done adequately.
- But *teacher have to *led the students *to a good way.
- It is very important that student should be aggressive when they are *study.

문단 구별도 없고 글의 전개가 초보단계라 할 정도로 서투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후평가에서는 체벌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여전히 문단의 구별 없이 어휘와 문법에서 오류가 많았지만 다음과 같이 어휘 사용에서 특히 풍부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Teachers major role is *_ give students *confidences so they can attend the class more actively and make them dream of everything they can do in the future. Punishment will be a big hurdle in *students progress *_ both mental and physical aspects.

마지막으로 요약하여 쓰기 반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받은 H학생에 관해 논의해 보겠다.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문단 구별 없이 요약하여 쓰기 반의 네 학생 중 가장 짧은 글을 썼으며 심지어 대문자와 소문자 사용에서도 오류가 많이 있었다.

- To me, *However, (사전평가)
- Sometimes, *It occurs.... (사후평가)
- When I was a middle school student, *Teachers.... (사후평가)

사전평가에서는 ‘punishment’를 ‘purnishment’로 ‘appeals’를 ‘apples’로 잘못 표기하기까지 하였다. 체벌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현에서도 중간 입장의 사전평가와 반대 입장의 사후평가 모두에서 마지막에 나타나지만 배경 설명이 충분치 않고 글 전개에 있어서 초보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각각의 마지막 부분을 옮겨 보겠다.

- I agree that corporal punishment is necessary partly. Punishment *in teacher's love will work to student who knows *teacher's affection. *unnecessary punishment is unnecessary *thing. (사전평가)
- I think that there are no *punishment of *live. It *contains emotions of hate, irritation, and *annoying at least. I wish that I don't misconduct by punishing my students: Because *It is *explicit that *I'm regretful *about *purnishing. (사후평가)

지금까지 사실 베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 반 학생들의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성적을 비교하고 구체적인 예들을 중심으로 토의하였다. 계속해서 각각의 연구 대상들의 과제수행 결과물(포트폴리오) 점검을 토대로 실제로 그들 각각이 어떻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였는지 알아보겠다.

3. 과제수행 과정: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베껴 쓰기 반 학생 네 명 모두 자신들이 한 학기동안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필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베껴 쓰기를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학생에 따라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간단히 적어보겠다. 우선 학생 A는 사실 텍스트에 직접 모르는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 또는 설명을 해놓았고 과제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느낌을 적었다. 즉 베껴 쓰기 과제를 하면서 점차 베껴 쓰기 시간이 단축 되었는데 이는 텍스트의 구조에 익숙해지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속도와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는 것, 또한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어휘에 익숙해지게 되었는데 결국 과제가 읽기와 더불어 글쓰기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다리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 등이었다.

B학생은 첫 3주 동안은 ‘New Words’ 란을 만들어 모르는 단어(군)의 의미를 영어로 적었는데 그 이후에는 텍스트에 직접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았다. 다음으로 C학생은 텍스트를 타자로 치고 직접 베끼는 식으로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였지만 그 외의 다른 활동의 흔적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D학생은 베껴 쓰기만 하였다.

한편 요약하여 쓰기 반 학생들은 요약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없이 각자 과제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베껴 쓰기 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열심히 과제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제 수행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E학생은 텍스트에 직접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하면서 읽었으며 모르는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해놓고 있었다. 요약하는 방법은 문단별로 텍스트의 영어를 가능하면 베끼지 않고 자신의 말로 하려고 하였는데 대체로 다음의 형식이였다.

- This editorial first introduces.... Secondly, it views....
- This editorial recognizes.... Also,
- This editorial criticizes....
- The writer claims....

다음으로 F학생은 각각의 사설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군)의 의미를 영영사전에서 찾아 예문을 직접 적어 놓았다. 요약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으며 요약부분은 주로 서론과 결론에서 베껴 쓰기를 하고 자신의 의견은 자신의 영어로 적고 있었다.

G학생은 텍스트에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번역하였고 요약은 지엽적인 내용들을 자신의 영어로 지루하게 기술하는 식이었다. 특히 어휘와 문법사용에서 오류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Of course Shin committed a gross fault, but I think this is also the society's fault *tendency.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주제가 관심이 있을 때는 다음에서와 같이 자신의 경험과 연계하여 요약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There are many interesting *concert, but it is too expensive to go there. So I was just *eagered for going why the price of musical in Korea is so expensiv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I always felt *curiosity about it. Yes, there *exist *reason. First, the size of classical music market is quite small. Second, corporate sponsorship *take benefits too much.... The government should make the law regulating this....

마지막으로 성적이 사후평가에서 낮아진 H학생은 텍스트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하고 모르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놓았다. 요약 부분은 텍스트 내용을 여기저기서 베껴놓고 있었고 자신의 의견을 적은 부분에서는 대부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법적인 오류는 다음에서 보듯이 심각하였다.

- There *are should be *relief for innocent students.
- It *are something weird and funny.... Our country would *developed more and more.

그러나 내용이 이해가 되었을 때는 다음에서처럼 언어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고 있었다.

*Invitating International Expo in 2012 is a very happy event. *the people of Yeosu would work hard to invite Expo. Somebody may think that it is *vain thing. Some people may *ignore or *concern about it.

4. 과제 수행 전략과 과제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결과

1) 베껴 쓰기 반과 요약하여 쓰기 반의 과제 수행 전략

과제와 관련하여 각 학생들의 설문지를 통해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모두가 만점인 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약하여 쓰기집단에서 베껴 쓰기 집단보다 과제가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요약하여 쓰기 집단 4.8/베껴 쓰기 집단 3.8). 한편 베껴 쓰기 집단 학생 4명 중 3명이 매일 매일의 분량이 많아 시간에 쫓겼다고 한 것으로 보아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별도의 단어카드를 만들어 새 단어를 공부했다는 학생이 요약하여 쓰기 집단에서는 4명 중 3명이었으나 베껴 쓰기 집단에서는 1명이었다. 새 단어를 반복해서 소리 내어 발음 해본다는 학생들

은 거의 대부분으로(4.5) 양 집단에 공통적이었다. 그리고 일단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추측하는 전략 역시 공통적으로 두 집단이 유사하였다(요약하여 쓰기 집단 4.0/베껴 쓰기 집단 3.8). 과제 시작 전에 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측하는 전략은 두 집단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요약하여 쓰기집단 4.5/베껴 쓰기 집단 4.3). 사전어를 찾을 때는 다 같이 예문을 보고 문법적 범주나 의미를 확인하려 한다고도 하였다(요약하여 쓰기집단 4.0/베껴 쓰기 집단 3.8). 과제수행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공통적으로 높아 과제를 마치면 마음이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요약하여 쓰기집단 4.8/베껴 쓰기 집단 4.3). 그리고 과제가 어떻게 하면 글쓰기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요약하여 쓰기집단 4.5/베껴 쓰기집단 4.3).

2) 베껴 쓰기 반과 요약하여 쓰기 반의 과제에 대한 의견

한 학기 동안 베껴 쓰기 혹은 요약하여 쓰기를 하며 느낀 점을 묻는 설문지의 주관식 문항에 적힌 학생들의 의견은 표 3과 같다. 연구자는 사전 평가에서 성적이 낮은 네 학생(학생 C, 학생D, 학생G, 학생H)을 낮은 성적 집단으로, 그리고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나머지 네 학생(학생A, 학생B, 학생E, 학생F)을 높은 성적 집단으로 분류해보았다.

표 3

베껴 쓰기 반과 요약하여 쓰기 반의 과제에 대한 의견

과제집단 성적집단	베껴 쓰기 집단	요약하여 쓰기 집단
낮은 성적 집단	<p>C학생: “...단어와 표현들이 문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지만 점차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모르는 단어의 뜻도 문맥 속에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말하기나 쓰기에 약한 학생들에게는 이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p> <p>D학생: “베껴 쓰기를 하는 동안 문장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사용되는지 알 수 있었던 듯합니다. 문법적으로 잘 써진 신문 사실들의 문장들을 통해 앞으로 영어로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야할지 또 어떻게 해야 문법</p>	<p>G학생: “사실들의 주제는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긴 했지만 다소 읽기 지루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기 후반으로 가면서 끝까지 사실을 꼼꼼히 읽고 내용을 다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사실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들을 요약할 때 그대로 인용해서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문 사실처럼 딱딱한 주제 말고 재미있는 주제의 글들을 읽을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p> <p>H학생: “신문 사실의 전반적인 주제로 정치나 사회적인 이슈는 사실상 이해하기도 어렵고 재미가 없었다. 그리고 매일 글을 읽고 요약하기는 힘들었던 것</p>

	<p>적으로 틀리지 않고 글을 잘 쓸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p>	<p>같다. 좀 더 재미있고 쉬운 글들을 읽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듯하다.”</p>
<p>높은 성적 집단</p>	<p>A학생: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사실 일주일에 6개씩이나 사설을 읽고 과제를 하는 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p>	<p>E학생: “...베껴 쓰기 과제를 하고 있는 반 친구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누곤 하며 무의미하게 베껴 쓰기를 하는 것보다는 요약하여 쓰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요약하기를 하면서 읽고 있는 긴 글의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p>
	<p>B학생: “다양한 토픽의 글들을 읽을 수 있어 읽기 능력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매일 베껴 쓰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방학에 좀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혼자서 계속 사설 읽기를 해볼 생각입니다.”</p>	<p>F학생: “이번 학기동안 주어진 과제를 통해 읽기와 쓰기 실력도 늘고 단어도 많이 알게 되었다.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지식도 넓어진 것 같고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글을 보아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글을 읽는데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 좋다.”</p>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베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 두 집단 모두에서 시사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휘력과 문장 분석력을 비롯하여 읽기와 글쓰기 향상에 도움이 되었지만 양적으로 부담이 컸고 사실내용이 흥미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였다. 성적별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에 낮은 성적의 베껴 쓰기 반 학생들은 문맥 속에서의 새로운 단어들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문장의 구성과 사용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높은 성적의 베껴 쓰기 반 학생들의 경우 단어 실력과 읽기 능력 향상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많은 사실의 양과 부족한 시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낮은 성적의 요약하여 쓰기 반 학생들의 경우 역시 매일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힘들었다는 점을 부정적인 면으로 꼽았으며, 어려운 사실의 난이도를 과제를 소홀히 하게 된 원인으로 들었다. 반면 높은 성적의 요약하여 쓰기 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글의 요점 파악 능력과 더불어 자신감의 향상을 언급하며 요약하여 쓰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 베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 두 가지 쓰기전략 종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들에게 한 학기동안 영문사설을 텍스트로 매일 과업을 수행하게 한 후 사전작문과 사후작문 성적을 비교하였다. 원래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모두 59명이었으나 (베껴 쓰기 반 28명, 요약하여 쓰기 반 31명) 설문분석과 과제충실도 점검에 의해 비적격자라고 판단되는 학생들과 같은 기간 중

다른 영작문 학습을 병행했다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각각 4명씩 총 8명이 선정되었다.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흥미 있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한 8명의 대상 중 1명을 제외한 7명에서 성적의 향상을 볼 수 있었는데 두드러진 것은 베껴 쓰기 방법은 사전평가에서 성적이 낮은 두 학생이, 그리고 요약하여 쓰기방법은 사전평가에서 성적이 높은 두 학생이 향상도가 높았다.

둘째, 베껴 쓰기 방법은 사전평가 성적이 낮은 두 학생(2.0과 1.5)에게서 사후평가와 비교했을 때 각각 1.5와 2.0의 매우 큰 향상이 있어 결국 사후평가에서는 전체 학생이 비슷한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다. 한편 요약하여 쓰기방법은 사전평가 성적이 똑같이 높은 두 학생에게서 사후평가에 다같이 1.0의 비교적 큰 향상이 있었다. 그러나 사전평가 성적이 가장 낮은 한 학생의 성적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사후평가에서 양자 간에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셋째, 참여 대상 학생 각각의 과제수행을 명확히 추적할 수 있는 과제물을 조사한 결과 베껴 쓰기 방법을 사용한 경우 사전평가 성적이 높은 두 학생은 오히려 단순히 베껴 쓰는 것 외에도 모르는 단어의 뜻을 영어 또는 우리말로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었으나 나머지 두 학생에게서는 베껴 쓰기 외의 다른 전략 사용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넷째, 과제수행에서 요약하여 쓰기 방법을 사용한 경우 학생들은 모두 요약하기 전에 텍스트 내용의 이해를 위해 어려운 부분을 표시하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하였으나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요약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전체를 자신의 말로 다시 바꾸어 썼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포함하지 않기도 하고, 요약은 텍스트의 일부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고 개인적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고, 자신의 말로 쓰려고 하였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적 오류사용으로 독자를 힘들게 하는 것 등 이었다.

다섯째, 요약하여 쓰기 방법 사용에서 텍스트의 주제가 관심 있는 경우 자신의 경험과 연계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려 하였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경우 자신의 생각을 적기도 하였다. 여섯째, 쓰기전략 사용에 대해 사전지도가 없었지만 개인별로 베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를 하기 전, 하는 중, 또는 하고 나서 사용하는 또 다른 공통적인 전략들이 있었다. 일곱째, 요약하여 쓰기방법 사용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기는 하였지만 특히 베껴 쓰기 방법 사용 학생들이 매일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설을 텍스트로 이용한 것은 사회문제, 시사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장점이 있었다는 공통적 지적이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영어는 이제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의사소통 수단인 세계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영어능력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교육이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크다는데 이의가 없다. 그러나 원활한 국제간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영어능력 중 말하기와 듣기 뿐 아니라 읽기와 쓰기가 모두 중요하다. 다행히 쓰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영어교사의 능력, 제한된 영어 수업시간, 그리고 시험에서의 쓰기항목 부재로 인한 동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영어쓰기 지도는 공교육에서는 아직 거의 황무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쓰기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베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방법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어교육과 3학년 학생 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동안 사례연구를 하게 되었고 두 가지 학습 전략 종류인 베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 8명의 학생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학생은 학기 초에 시행된 사전평가에 비해 학기 말에 시행된 사후평가에서 모두 성적이 향상되었다. 낮은 성적의 베껴 쓰기 반 학생들이 높은 성적의 학생들에 비해, 그리고 높은 성적의 요약하여 쓰기 반 학생들이 낮은 성적의 학생들에 비해 쓰기 실력의 향상이 더 높았다. 높은 성적의 베껴 쓰기 반 학생들은 과제 수행에 있어 낮은 성적의 학생들에 비해 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 반면 요약하여 쓰기 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각기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베껴 쓰기 반과 요약하여 쓰기 반 학생들 모두 과제 수행에 있어 양적, 시간적인 부담과 사설의 높은 난이도를 부정적인 점으로 생각하는 한편 시사적인 주제에 대한 지식과 어휘력 확장, 읽기 속도 향상, 읽기와 쓰기 능력의 향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어 쓰기 지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보겠다.

첫째,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영어 쓰기 실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베껴 쓰기 방법을 사용하고 실력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요약하여 쓰기방법을 사용하여 지도한다. 둘째, 베껴 쓰기 방법을 사용하여 쓰기를 지도할 때에도 읽기전략에 속하는 모르는 부분 일단 추측하기, 제목보고 내용 추측하기, 사전 찾을 때 예문 중시하기, 모르는 단어 소리 내어 읽어보기와 같은 전략을 사용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적합한 읽기전략을 지도 및 지시해야 한다. 셋째, 요약하여 쓰기방법을 사용하여 쓰

기를 지도할 때 역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텍스트 원문을 단순화하거나 더 어렵게 제시하고, 요약 시 원문에 언급된 사실만 포함하게 할 것인지 혹은 학생들 의견 또한 첨가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넷째, 사설은 그때그때의 중요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현실감이 있기는 하지만 주제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흥미 있는 주제의 내용을 미리 선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부담감을 주어 충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과제를 주기보다는 매주 2-3회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영어전공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중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일 경우 빼져 쓰기의 효과는 예상외로 클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텍스트 선정에서부터 빼져 쓰기 방법과 함께 사용할 읽기전략 지도, 과제수행 횟수 등을 정하고 쓰기능력이 이미 어느 정도에 달해있는 학생들을 위한 요약하여 쓰기방법을 별도로 지도한다면 영어쓰기 교육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김미래, 서천수. (2007). 외국어 학습 전략 사용과 영어 학업성취도의 관계. *영어교육연구*, 19(1), 135-159.
- 민찬규. (1994). 영어교육과 쓰기교육. *영어교육*, 48, 171-187.
- 이보옥. (2003). *고등학교 영어 교육에서 쓰기 중심의 통합적 접근 방법*.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Brown, A. L., Campione, J. C., & Day, J. D. (1981). Learning to learn: On training students to learn from text. *Educational Research*, 10, 14-21.
- Celce-Murcia, M. (1985). Making informed decisions about the role of grammar in language teaching. *TESOL Newsletter*, 19(1), 4-5.
- Chin, Cheongsook. (2005). Perceptions, language proficiency, and learning strategies of college EFL writer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1(1), 101-125.
- Garner, R., & McCaleb, J. L. (1985). Effects of text manipulations on quality of written summari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0, 139-149.
- Joh, Jeongsoon. (2000). Using the summarization task as a post-reading activity at college EFL classrooms. *English Teaching*, 55(3), 193-216.
- Johns, A. M., & Mayes, P. (1990). An analysis of summary protocols of

- university ESL students. *Applied Linguistics*, 11, 253-271.
- Johnson, N. (1983). What do you do if you can't tell the whole story? The development of summarization skills. In K. E. Nelson (Ed.), *Children's language* (vol. 4) (pp. 315-38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Kech, C. (2006). The use of paraphrase in summary writing: A comparison of L1 and L2 writers.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15, 261-278.
- Kennedy, M. L. (1985). The composing processes of college students' writing from sources. *Written Communication*, 2, 434-456.
- Kim, HyeJin, & Yoon, Hyunsook. (2008). Effects of predictability in L1 on the use of L2 verb-noun collocations. *English Teaching*, 63(2), 237-259.
- Krashen, S., & Terell, T.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Oxford: Pergamon.
- Kim, Sun-Young. (2007). The role of L2 proficiency in using sources: The College ESL composition clas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3(2), 59-82.
- Lee, Soyoung. (2001). How is reading instruction practiced in high schools? *English Teaching*, 56(4), 243-263.
- Maeng, Unkyoung. (2006). How are reading strategies used in different reading stages? *English Teaching*, 61(1), 185-203.
- Olshtain, E. (2001). Functional tasks for mastering the mechanics of writing and going just beyond.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rd ed.) (pp. 207-217). Boston, MA: Heinle & Heinle.
- O'Malley, J. M., & Chamot, A. U. (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Boston, MA: Heinle & Heinle.
- Pae, Tai-II. (2008). A structural model for Korean EFL students' writing performance. *English Teaching*, 63(2), 121-137.
- Park, Yujung. (2007). The use of information from source texts in Korean EFL graduate students' academic writing: Implication for teaching EFL writing.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3(1), 65-92.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im, Eunsook. (2009). An investigation of secondary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of writing instruc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10(1), 114-130.

- Song, Heshim. (2000). A study of the teaching of read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 Korea. *English Teaching*, 55(4), 367-388.
- Song, Minjong. (2007). A promising practice for improving writing quality and decreasing writing apprehension of Korean students. *Modern English Education*, 8(2), 113-135.
- Taylor, B. M., & Beach, R. W. (1984). The effects of text structure instruction on middle grade students'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expository text. *Reading Research Quarterly*, 19, 134-146.
- Tsai, J. (2006). Connecting reading and writing in college EFL courses. *The Internet TESL Journal*, XII(12). Retrieved July 11, 2009 from <http://iteslj.org/Articles/Tsai-ReadingWritingConnection.html>

부록 1

설문지⁴ (베껴 쓰기 반)

이번 학기에 영어 글쓰기 향상을 위해 시도한 영어사실 베껴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여 답지에 적어 주십시오. 3번 문항 이후는 본인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전략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1. 나는 한 학기동안 열심히 사실 관련 과제를 수행하였다.
2. 이 과제가 나의 영어 글쓰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 새로운 단어(군)을 기억할 때 그것이 사용된 원래 문장 또는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4. 새로운 단어(군)은 개별적으로 외우지 않고 단어군 또는 문장으로 외운다.
5. 새로운 단어(군)은 별도의 단어카드에 적어 반복해서 읽으면서 외운다.
6. 새로운 단어(군)은 별도의 단어카드에 적어 반복해서 쓰면서 외운다.
7. 새로운 단어(군)을 기억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단어(군)과 연관을 시키려고 노력한다.
8. 새로운 단어(군)을 기억하기 위해 여러 번 소리 내어 발음해 본다.
9. 새로운 단어(군)을 기억하기 위해 몸동작을 의미할 때는 동작을 취해본다.
10. 전에 기억했던 것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단어카드 또는 단어정리 공책을 주기적으로 다시 보며 복습한다.
11. 모르는 단어(군)이 나오면 즉시 베껴 쓰기를 중단하고 사전을 찾는다.
12. 모르는 단어(군)이 나오면 일단 추측을 하지만 확인하기 위해 사전을 찾는다.
13. 모르는 단어(군)이 나오면 어원, 접두사, 접미사로 나누어 분석해서 전체의 의미를

4 각각의 객관식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다소 그렇지 않다(2), 잘 모르겠다(3), 다소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중에서 숫자를 고르도록 하였다. 1-10번 문항은 두 반에 공통이었다.

과약해 보려고 한다.

14. 사실을 베껴 쓴 후 전체의 의미를 요약하는 습관이 있다.
15. 사실을 베껴 쓴 후 글의 전개를 분석하는 습관이 있다.
16. 사실을 베끼면서 소리 내어 읽는 습관이 있다.
17. 베껴 쓰기 전에 전체를 빨리 훑어본다.
18. 한 문장 한 문장 번역하며 베껴 쓴다.
19. 모르는 단어나 구가 나오면 일단 베껴 쓰기를 중단하고 문맥에서 추측해 본다.
20.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때 예문을 읽으며 해당되는 문법적 범주와 뜻을 확인하려고 한다.
21.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되면 단어카드에 자신의 예문을 만들어본다.
22.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친구나 선배에게 물어본다.
23. 사실 내용에 대해 친구들과 토의하기를 좋아한다.
24. 사실을 베껴 쓰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진다.
25. 베껴 쓰기 전에 제목을 보고 사실의 내용을 예측해본다.
26. 베껴 쓰기 전에 먼저 사전 질문을 만들어본다.
27. 베껴 쓰면서 자주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점검한다.
28. 베껴 쓰기가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9. 어떻게 하면 사실 베껴 쓰기가 영어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30~31번은 주관식 문항입니다.

30.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별도의 영어 글쓰기 연습을 하였는지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예, 선택한 과목과 수업 방법 등).
31. 이번 학기에 사실을 베껴 쓰면서 유익했던 점, 또는 그렇지 않았던 점 등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In Korean)

설문지 (요약하여 쓰기 반)

이번 학기에 영어 글쓰기 향상을 위해 시도한 영어 사실 읽고 글로 요약하기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하여 답지에 적어 주십시오. 3번 문항 이후는 본인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전략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1. 나는 한 학기동안 열심히 사실 관련 과제를 수행하였다.
2. 이 과제가 나의 영어 글쓰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 새로운 단어(군)을 기억할 때 그것이 사용된 원래 문장 또는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4. 새로운 단어(군)은 개별적으로 외우지 않고 단어군 또는 문장으로 외운다.
5. 새로운 단어(군)은 별도의 단어카드에 적어 반복해서 읽으면서 외운다.
6. 새로운 단어(군)은 별도의 단어카드에 적어 반복해서 쓰면서 외운다.
7. 새로운 단어(군)을 기억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단어(군)과 연관을 시키려고 노력한다.

8. 새로운 단어(군)을 기억하기 위해 여러 번 소리 내어 발음해 본다.
9. 새로운 단어(군)을 기억하기 위해 몸동작을 의미할 때는 동작을 취해본다.
10. 전에 기억했던 것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단어카드 또는 단어정리 공책을 주기적으로 다시 보며 복습한다.
11. 모르는 단어(군)이 나오면 즉시 읽기를 중단하고 사전을 찾는다.
12. 모르는 단어(군)이 나오면 일단 추측을 하지만 확인하기 위해 사전을 찾는다.
13. 모르는 단어(군)이 나오면 어원, 접두사, 접미사로 나누어 분석해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14. 자세히 읽기 전에 중심 내용을 알기 위해 빨리 훑어본다.
15. 소리 내어 읽는 습관이 있다.
16. 한 문장씩 번역하며 읽는 습관이 있다.
17. 읽으면서 글의 전개를 분석하는 습관이 있다.
18. 요점을 정리할 때 원문에 있는 단어나 단어 군을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다.
19. 요점을 정리할 때 가능하면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쓰려고 한다.
20. 모르는 단어나 구가 나오면 일단 읽기를 중단하고 문맥에서 추측해본다.
21.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때 예문을 읽으며 해당되는 문법적 범주와 뜻을 확인하려고 한다.
22.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되면 단어카드에 자신의 예문을 만들어 본다.
23.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친구나 선배에게 물어본다.
24. 사실 내용에 대해 친구들과 토의하기를 좋아한다.
25. 사실을 요약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진다.
26. 사실을 읽고 요약하기 전에 우선 제목을 보고 내용을 예측해본다.
27. 사실을 읽고 요약하게 전에 우선 제목을 보고 사전 질문을 만들어본다.
28. 사실을 읽고 요약한 후에 제대로 한 것인지 평가하기 위해 다시 읽고 요약 내용을 점검한다.
29. 사실을 읽고 요약하는 것이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0. 어떻게 하면 사실 읽고 요약하기가 영어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

※ 31~32번은 주관식 문항입니다.

31.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별도의 영어 글쓰기 연습을 하였는지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예, 선택한 과목과 수업 방법 등).
32. 이번 학기에 사실을 요약하면서 유익했던 점, 또는 그렇지 않았던 점 등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In Korean)

부록 2

TWE 채점 기준

Score of 6

An essay at this level:

effectively addresses the writing task
is well organized and well developed
uses clearly appropriate details to support a thesis or illustrate ideas displays consistent facility in the use of language
demonstrates syntactic variety and appropriate word choice

Score of 5

An essay at this level:

may address some parts of the task more effectively than others
is generally well organized and developed
uses details to support a thesis or illustrate an idea
displays facility in the use of the language
demonstrates some syntactic variety and range of vocabulary

Score of 4

An essay at this level:

addresses the writing topic adequately but may slight parts of the task
is adequately organized and developed
uses some details to support a thesis or illustrate an idea
demonstrates adequate but possibly inconsistent facility with syntax and usage may contain some errors that occasionally obscure meaning

Score of 3

An essay at this level may reveal 1 or more of the following weaknesses:

inadequate organization or development
inappropriate or insufficient details to support or illustrate generalizations
a noticeably inappropriate choice of words or word forms
an accumulation of errors in sentence structure and/or usage

Score of 2

An essay at this level is seriously flawed by 1 or more of the following weaknesses:

serious disorganization or underdevelopment
little or no detail, or irrelevant specifics
serious and frequent errors in sentence structure or usage
serious problems with focus

Score of 1

An essay at this level:

may be incoherent may be undeveloped
may contain severe and persistent writing errors

Score of 0

An essay will be rated 0 if it:

contains no response

merely copies the topic

is off-topic, is written in a foreign language or consists only of keystroke characters

박상옥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Tel: (02) 320-1858

Email: parksok@wow.hongik.ac.kr

이유진

Department of Literacy, Culture, and Language Education

W.W.Wright Education Building 201 N. Rose Ave., Room #3044

Bloomington, IN 47405-1006

Tel: 1-812-345-5887

Email: yl14@indiana.edu

Received 30 April 2009

Reviewed 23 June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29 July 2009